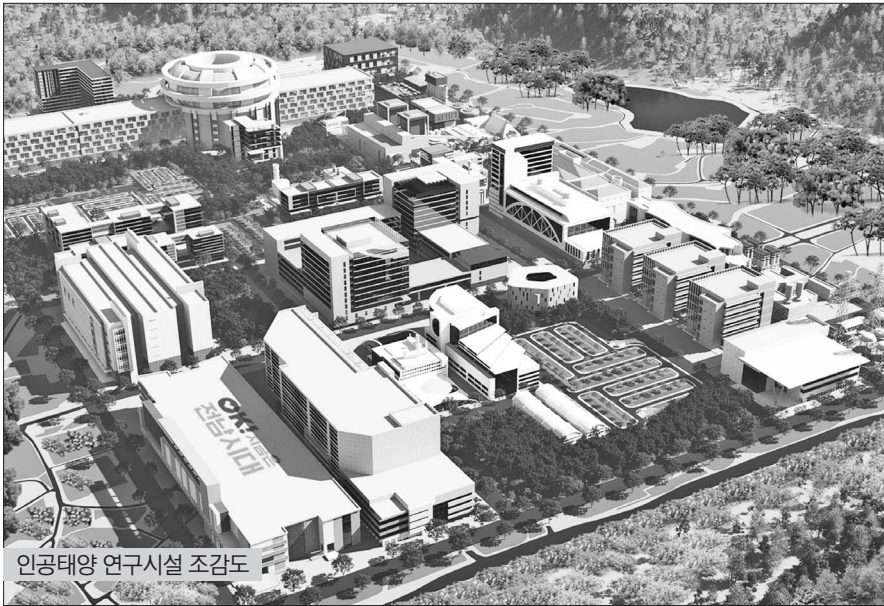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확정… 전남 재생에너지·AI ‘시너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감도

도 추진단 구성…대정부 창구 단일화·조기 구축 1조2000억원 규모…200개 글로벌기업 유치 기대

인공태양 연구시설 입지가 나주로 최종 확정됐다.

전남도는 11일 핵융합(인공태양) 연구 시설 구축 최종 사업지가 나주시로 확정된 것에 대해 공식 환영문을 통해 발표했다.

전남도는 “이 뜻깊고 자랑스러운 소식을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호남 시·도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 회, 공직자, 항우, 과학계와 대학, 연구기관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

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나주 유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결과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한전 등 70여 에너지 기업, 단 한건의 자연재해도 없는 안전한

부지, 열렬한 시·도민 지지까지 준비된 노력과 탁월성이 정부와 과학계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 나주에 구축될 경우 2000여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전남으로 유입되고,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와 1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AI 중심도시’를 표방한 전남도가 인공태양까지 유치하게 돼 AI 산업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나주시, 한국에

너지공과대학교와 함께 원팀으로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차질없이 완공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지사가 총괄하고, 나주시장·경제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도 구성해 대정부 창구를 단일화하고, 연구시설 조기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김규용 전남도 대변인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도 전남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새 역사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에너지수도 도약 본궤도…“미래 주도권 확보”

광주경총·광주상의 환영 입장문 고용 1만명 신산업 생태계 확장

전남 나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부지로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항우 산업 지형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제사업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이 ‘대한민

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경제자유구역협의회(회장 양진석)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시와 전남도가 한 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치밀한 전략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유치가 단순 연구시설 설치를 넘어 미래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국가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

봤다.

광주경총은 연구시설 조성 과정에서 약 1만명의 고용이 유발되고 완공 이후 2000여명 규모의 연구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광주 AI·제조업과 나주의 에너지 인프라가 결합할 경우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유치는

지역의 역원이 만든 위대한 성과”라며 “인공태양이라는 거대한 광원이 광주·전남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경총도 지역 기업들이 이번 거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도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유치가 나주가 수년간 구축해 온 연구 인프라와 입지 경쟁력, 주민 수용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연구 기반,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집적도, 에너지밸리 산업 생태계 등이 항우 핵융합 기술 개발과 실증,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으로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유치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의지를 적극 전달했고, 산·학·연 기관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역 역량을 결집시켰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연구시설 조성으로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신산업 기업 집적, 글로벌 연구 협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

혔다. 나주뿐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광주상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와 예산 반영과 행정 절차 등 후속 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연구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박차’

광양경제청, 8개 분야 전문가 그룹 간담회서 방안 모색

광양경제청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간담회’를 통해 투자유치 전략과 경쟁력 제고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경제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2개월 동안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광·레저분야 전문가그룹, 소재부품·에너지, 신산업 전문가그룹, 이차전지·신재생 분야 전문가그룹, 제조·서비스 분야 전문가그룹, 화학산업 전문가그룹, 향만물류분야 전문가그룹, 철강산업분야 전문가 그룹 등 8개 산업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치방안을 모색했다.

경제청은 8개 분야에 101명의 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처음 가진 의료기기산업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은 화학, 철강, 이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 핵심 생산거점으로 산업 인프라와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며 “청년 일자리와 시니어 산업이 공존하는 특성을 살려 인공지능(AI), 로봇, 생체의료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미래

형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래핵심산업을 위한 ‘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분야전문가간담회’에서는 “광양만권은 국가산단, 항만, 철도 등 물류·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핵심산업 벨트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소재·부품산업의 공급망 강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수소·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강산업 전문가그룹 간담회에서는 철강산업 위기 돌파를 위해 수출확대 및 시장 다변화, 수입방어 전략 강화, 고부가·저탄소 강재 개발, 산업고도화 및 탄소중립 선제 대응 등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종근 경제청장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관광레저 등 모든 분야 투자유치전략을 구체화해 광양만권 투자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5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 모델 제시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지원 사업 성료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5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전남대병원이 주관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남부대학

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가운데 근골격계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 혁신과 참여 기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은 지역별로 상생 품이 상대적으로 공관절 등 3D 프린팅 기반 생체 삽입형 의료기기 기술이 기업 주도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발췌됐으며, 기업 간 벤치마킹과 기술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

사업단은 지난 5년간 여러 기업과 협력해 기존 기술로는 어려웠던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실현하며 정밀하고 효과적인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산학연병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하며 세

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은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골격계 의료기기 기업 지원과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윤택림 총괄책임자는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의 성과가 환자 치료와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항후 후속 사업과 연구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제1회 KEMI ESG Awards2025’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공부문 ‘최우수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ESG경영개발원(KEMI)에서 주최하는 ‘제1회 KEMI ESG Awards2025’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KEMI ESG Awards’는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보고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공익적 시장제로 글로벌 공시 기준 부합 여부와 데이터 기반 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항만공사는 항만 산업 특성을 고려해 ESG핵심 이슈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

해관계자별 맞춤형 소통전략을 적용한 점, 환경·안전·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항만공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리더’라는 비전으로 ESG경영체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GRI·TCF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항만 특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관의 핵심 이슈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공공기관 보고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지역 아파트값 회복 신호 뚜렷해지나

광주 0.01%·전남 0.08% ↑…여수·무안 상승세 견인

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상무·운암·첨단 등 주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며 시장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지역별로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여수시는 0.12% 오르며 전주 0.10%에 이어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미평·소호동 등 선호 단지의 매물 소진이 빨라지면서 전반적인 가격을 견인했다.

무안군은 0.13% 상승하며 전주 0.20%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오룡·삼향지구 중심의 신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다.

나주시는 0.04%로 전주 0.0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실수요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광양시는 0.10% 상승하며 전주 0.07%보다는 올라 안정적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목포시는 -0.03%로 전주 -0.10%에서 낙폭이 크게 줄며 하락세가 완화됐

다. 금매물 소진 이후 추가 하락폭이 제한되면서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 역시 회복세가 이어졌다. 광주는 0.03% 상승하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남은 0.07% 상승해 지난주(0.06%)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여수(0.10%), 무안(0.09%), 나주(0.07%), 광양(0.07%) 등 주요 지역이 모두 강보합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상승해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1%, 서울은 0.18%, 지방은 0.02% 상승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